

부닥치는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나가며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일때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에서 천명된 정면돌파전사상은 전진도상에 직면한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으로서 온 나라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물을 받고있다.

공화국각지에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열기모임들이 련일 벌어지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들에서 정면돌파전으로 승리의 활로를 열기 위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것은 이로서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현명한 로선인가를 웅변해주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과 그 산물인 경제압살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경제압살

책동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릴수는 없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제재해제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의 길을 택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대세력들의 경제압살소동에 언제나 맞받아 나아가면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온 자주성이 강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공화국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정의와 승리의 길이다.

공화국이 벌리는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간직되어있는 믿음이다.

정면돌파전을 벌일때 대한 사상에는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의 제

재속에서 살아오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기에 이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되었으며 그 어떤 제재광풍도 자력갱생으로 쳐갈고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체질화하였다.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겠다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민심이다.

불매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자립경제의 막강한 저력도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내야 하는 확실성있는 근거들이다. 공화국이 가장 독특한 제재봉쇄를 이겨내야 했던 지난해에도 국방력강화와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수 있고 자기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는

것이다. 공화국의 정면돌파전사상은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정면돌파전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고있는 공화국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로씨야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크게 추동한 의의있는 계기였다고 언급하면서 《정면돌파사상은 조선반도정세와 세계정치구도를 명확하게 분석한 김정은동지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일심단결되고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애국적인민이 있으며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안성복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 제시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국제사회계가 적극 지지하고있다.

트르바쯔까사회로동당 국제부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전투적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들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려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이렇게 성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며 부닥친 난관과 도전들을 박차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일때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

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다고 인정하면서 그 관철을 위해 펼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였다.

백두산체스조선친선협회, 체스교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소조 공동성명은 대조선제재가 지속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고 말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조선의 막강한 전쟁억제력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자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선의 립장을 지지한다.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인디아의 오우선 뉴스 포인트신문사 주필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난관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력부강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때 대한 그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레바논주제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김정은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며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것이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9년은 조선인민이 자위적방향을 성공적으로 강화한 의의 깊은 해였다.

이것은 조선민족사에서 획기적

인 사변으로 되며 또한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큰 경사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박을 물리치며 모든 분야에서 보다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씨야 연대시 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2020년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되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외부반동세력들의 도발은 가장 진보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평화와 정의의 위업을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진보와 번영의 행로를 줄기차게 이어나갈것이라고 격찬하였다.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총비서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김정은동지의 위업을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보다 높은 단계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조선의 앞날을 밝히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책동을 폭로하시고 국방력과 전쟁억제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과업수행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시기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싱가포르인터콘살팅유한회사 사장은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국가적혜택이 인민대중에게 돌리고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는 품이라고 확신있게 말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흥성번영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인민이다.

조선은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몇해사이 돌라보게 변모되었다. 훌륭한 기 어려운 정도로 잘 입고 다닌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것이 아니었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할 거짓이다. 조선은 인류의 리상사회이며 인류가 꿈속에서 지닌 슬기로운 인민이기에 오늘날 자기와 락관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이 더욱 부강발전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여러곳을 돌아본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방문은 서방통신들과 나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온갖 잡생각을 뒤집어엎고 나의 생활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체험으로 되었다.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사람들은 인기 어려운 정도로 잘 입고 다닌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것이 아니었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할 거짓이다. 조선은 인류의 리상사회이며 인류가 꿈속에서 지닌 슬기로운 인민이기에 오늘날 자기와 락관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이 더욱 부강발전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진보적 인류의 감탄의 목소리는 커다란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시기자 황금숙

조국소식

원산김치공장 준공식 진행

원산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공장에는 통배추김치, 양배추김치, 각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김치를 생산할수 있게 절임실, 가공실, 종합조종실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지고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 호르몬화가 실현되어있다.

항구문화도시에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품인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김치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었다.

원산김치공장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었다.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원산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제일봉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는 정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는 각도들에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일떠세우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장종업원들이 인

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김치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정면돌파전으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또다시 큰 걸음을 내짚으며 전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김치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시기자



《그 언제나 가고싶은 마음의 고향, 꿈속에도 안겨보는 장군님고향, 백두산은 조선사람모두의 고향입니다.》

이것은 학생소년들의 2020년 설맞이공연 《백두산 축복안고 설날아 내려라》에 참가하여 재일조선학생소년에술단이 터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바다 건너 천바람부는 이역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백두산을 그리며 살고있는가 이 공연 하나를 통해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유치원시절 크레용으로 그려보며 꿈 나래펴고 오르던 백두산, 고금부 형님, 누나들이 떠나온 천지의 맑은 물을 마시며 조선사람의 긍지를 키워온 백두산, 이러한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살았기에 사나운 비바람도 굴함없이 맞받아나간다는 그들의 진실한 고백은 공연을 관람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조종의 산인 백두산을 경건히 우러르게 하고 모두의 마음을 백두산으로 더욱 달려가게 하였다.

무대 위에서 이역의 동포어린이들은 이렇게 웨치였다. 《우리는 보냈습니다. 천리준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신 원수님의 그 영상을, 우리는 앞섰습니다. 바람새천 이역땅에서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영광의 대회장으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어주시 원수님

들이 해쳐간 혈전의 길, 혹은 동포들은 백두산혁명전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간직하게 되었다.

참으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빛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신성히 떠받드는 조종의 산이고 그들은 말하였다. 10여

직 체험해보지 못한 동지에 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직접 깨달을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고 그들은 말하였다. 10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지휘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사는 동포들을 비롯하여 재중동포들도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산다며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저마다 리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일꾼들은 민족의 성산이며 영광스러운 민족 자주위업이 개척되고 그 계승의 만년담보가 마련된 백두산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추위가 풀리지 않은 2월에 붉은기를 펼칠 휘날리며 사남게 휘날리지는 설한풍을 맞받아 행군하면서 항일선렬

들이 해쳐간 혈전의 길, 혹은 동포들은 백두산혁명전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간직하게 되었다.

참으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빛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신성히 떠받드는 조종의 산이고 그들은 말하였다. 10여

직 체험해보지 못한 동지에 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직접 깨달을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고 그들은 말하였다. 10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지휘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사는 동포들을 비롯하여 재중동포들도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산다며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저마다 리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일꾼들은 민족의 성산이며 영광스러운 민족 자주위업이 개척되고 그 계승의 만년담보가 마련된 백두산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추위가 풀리지 않은 2월에 붉은기를 펼칠 휘날리며 사남게 휘날리지는 설한풍을 맞받아 행군하면서 항일선렬

대를 이어 가야 할 민족의 성산이다. 백두산의 높이는 절세위인을 모셔 하늘끝까지 닿은 조선의 존엄의 높이이다.

그 아아하게 치솟은 백두령봉과 천지의 푸른 물을 보며 애국의 피를 더욱 끓이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그마한 기여라도 하기 위해 애쓰는 해외동포들이다.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언제나 세계에 살아가는 해외동포들은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짓부시며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자신들의 보폭도 따라세우고있다.

본시기자 한일혁

